

# ‘파격변신’ 뉴진스, 연타석 홈런

“OMG, 독특·영동한 노래”  
정신병동 연상케하는 MV  
악플러 향한 경고 메시지도

2000년대 초반의 향수를 불러일으켰던 소녀들이 이번에는 독특한 상상력을 품은 환자로 변신했다.

데뷔 음반 ‘뉴진스’(New Jeans)와 선공개곡 ‘디토’(Ditto)에 이어 첫 싱글 ‘OMG’로 연타석 홈런을 친 걸그룹 뉴진스 이야기다.

뉴진스는 ‘디토’의 뮤직비디오에서 학교를 배경으로 구형 컴퓨터와 2G 휴대전화와 같은 복고풍 소품을 활용해 2000년대 초반에 학창 시절을 보낸 팬들의 추억을 소환했다.

그렇던 뉴진스는 ‘OMG’의 뮤직비디오에서 걸그룹으로서의 파격적으로 정신병동으로 추정되는 공간을 배경으로 상담을 받는 환자로 변신했다.

멤버 다니엘이 출연 “우리 지금 뮤직비디오 촬영 중이야”라고 외치는 등 ‘뮤직비디오 속 가상의 세계’와 ‘뮤직비디오를 제작하는 현실 세계’의 경계가 흐려지는 독특한 연출이 등장하기도 한다.

뉴진스의 유머러스함과 파격적인 변신이 돋보인 ‘OMG’를 향한 팬들의 반응은 뜨겁다. 한터차트 기준으로 이번 싱글은 발매 첫날에만 48만 장이 넘게 판매되며, 데뷔 음반 ‘뉴진스’의 발매 첫 주 판매량인 31만 장을 넘어섰다. ‘OMG



걸그룹 뉴진스

/어도어 제공

’는 3일 오후 6시를 기준으로 국내 최대 음원 플랫폼인 멜론 실시간 ‘톱 100’ 차트에서 ‘디토’에 이어 2위를 차지하는 등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김도현 대중음악평론가는 “‘OMG’는 가볍게 듣기 좋은 댄스 팝인 동시에 독특하고 영동한 노래”라고 설명했다.

‘OMG’의 뮤직비디오는 멤버들의 파격적인 변신이 참신하다는 평가와 함께 현실의 악플러를 향해 경고하는 듯한 마지막 장면도 화제가 되고 있다. 뮤직비디오는 멤버들이 각자의 병실로 돌아간 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악성 게시물을 올리고 있는 악플러를 비춘다.

팬들 사이에서는 해당 장면이 아이돌의 작품을 가지고 다양한 해석을 생산하는 팬덤을 겨냥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민재 대중음악평론가는 “마지막 장면의 메시지 의미가 나쁘진 않지만, 그것을 왜 뉴진스의 뮤직비디오에서 봐야 했는지는 의문이 남는다”고 지적했다.

김도현 평론가도 “음악에 등장하는 소재를 기발하게 사용했고, 팬덤은 소재의 의미를 해석하면서 재미를 느꼈다”며 “그런 강점을 가진 팀이 왜 팬들의 작품을 향한 해석을 얇게 만들려고 했는지 아쉽다”고 말했다.

# 로맨스 비중 늘린 ‘환혼’ 시즌2 인기몰이

장욱·진부연 애절한 로맨스  
홍자매 특유 웃음코드 탄력

지난 시즌에 비해 두 주인공의 로맨스에 초점을 맞춘 ‘환혼’ 시즌2가 인기를 얻고 있다.

4일 CJ ENM이 발표한 12월 넷째 주(19~25) 콘텐츠영향력평가지수(CPI) 집계에서 tvN 드라마 ‘환혼: 빛과 그림자’(이하 ‘환혼2’)가 3위를 차지했다. CPI 지수는 271.8로 집계됐다.

판타지와 사극, 로맨스와 활극을 한데 버무린 ‘환혼’은 역사에도 지도에도 존재하지 않은 대호국을 배경으로, 영혼을 바꾸는 ‘환혼술’로 인해 운명이 비틀린 주인공들이 이를 극복하고 성장해가는 이야기를 그린다.

‘환혼’ 시즌1이 천연덕스러운 도련님 장욱

(이재욱 분)이 술사로 거듭나는 성장기와 장욱-무덕이(정소민) 커플의 씩트는 로맨스를 적절하게 배합했다면 시즌2는 정소민 대신 고윤정을 여자 주인공으로 내세워 로맨스의 비중을 늘렸다.

무덕이를 잃고 죽음 끝에서 살아 돌아온 장욱은 낙수의 얼굴을 한 진부연(고윤정)과 혼인을 하게 된다.

시즌2 초반에는 시청자 반응이 엇갈렸다. 시체까지 불타 없어졌던 낙수가 원래 모습 그대로 되살아났다는 설정으로 시청자들의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데 성공했지만, 낙수가 어떻게 육체를 회복할 수 있었는지 등에 대한 설명이 부족해 ‘여자 주인공의 정체가 도대체 무엇인지 헷갈린다’는 반응도 나왔다.

그러나 후반부로 갈수록 로맨스가 강조되고 극본을 쓴 홍자매(홍정은·홍미란) 특유의 웃



tvN ‘환혼’

/tvN 홈페이지

음 코드가 한층 강조되면서 극의 재미도 탄력을 받는 분위기다. 진지한 내용을 이어가다 한순간에 유머로 긴장감을 누그러뜨리는 식으로 극의 호흡을 조절해온 홍자매는 이번 시즌에서도 재치 있는 대사로 적재적소에 웃음을 안겼다.

/연합뉴스

※이 프로그램은 방송국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SBS	EBS
6:00 KBS 뉴스광장 7:50 인간극장 8:25 신년 기획 아침마당 9:30 KBS뉴스 10: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11:00 열린채널 11:40 팔도방송 스페셜	6:10 걸어서 세계 속으로 7:00 해 불만한 아침1부 8:05 해 불만한 아침2부 9:00 KBS 아침 뉴스 타임 9:20 내 눈에 콩깍지 10:00 인간극장 스페셜 10:40 지구촌 뉴스 11:00 태풍의 신부 스페셜	6:00 뉴스투데이1부 6:25 뉴스투데이2부 7:50 대년의 게임 8:30 생방송 오늘아침 9:30 930 MBC 뉴스 9:45 기분 좋은 날 10:45 보보보 좋아좋아	6:00 모닝와이드1부 6:25 모닝와이드2부 7:40 모닝와이드3부 8:40 맨인블랙박스 8:50 종말이침 9:55 SBS 10 뉴스 10:30 열린TV 시청자 세상 11:30 교향이 보인다	6:10 세계테마기행 7:00 꼬마버스 타요 7:15 하프와 친구들 7:45 뒤죽박죽의 빅토 패밀리 8:00 엉뚱맨 유치원 8:20 미니특공대 바이레인저스 9:05 최고다. 호기심 딱지 9:20 시공 10:10 한국의 둘레길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1:20 세계테마기행 12:00 EBS 뉴스12 12:10 EBS 교육진단 1:00 글로벌 이빨찾아 삼만리 2:45 한국의 둘레길 3:05 나를 위한 매일 수업 4:05 영어 스토리 타임 4:15 페피피 5:00 EBS 뉴스 6:00 생방송 워터지 해결단 7:00 정글 플래닛 7:30 한국의 둘레길 7:50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8:40 세계테마기행 9:30 한국기행 9:50 극한직업 10:45 공상기담 11:35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즈 11:55 클래식
6:00 6시 내고향 7:00 KBS뉴스7 7:40 한국인의 밥상 8:30 내 눈에 콩깍지 9:00 KBS 뉴스9 10:00 최초의 질문 10:50 더 라이브 11:30 KBS 뉴스라인	6:30 2TV 생생정보 7:50 태풍의 신부 8:30 세컨하우스 9:50 연모 11:00 연중 플러스	6:05 생방송 오늘 저녁 7:05 생방송 연금복권720+ 7:10 대년의 게임 7:40 MBC 뉴스데스크 9:00 실화시대 10:00 심야토크쇼 11:20 태어난김에 세계일주	6:50 생방송 투데이 7:50 SBS 8 뉴스 9:00 관계자 외 출입금지 10:30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 그날 이야기	6:00 세계테마기행 7:00 꼬마버스 타요 7:15 하프와 친구들 7:45 뒤죽박죽의 빅토 패밀리 8:00 엉뚱맨 유치원 8:20 미니특공대 바이레인저스 9:05 최고다. 호기심 딱지 9:20 시공 10:10 한국의 둘레길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1:20 세계테마기행 12:00 EBS 뉴스12 12:10 EBS 교육진단 1:00 글로벌 이빨찾아 삼만리 2:45 한국의 둘레길 3:05 나를 위한 매일 수업 4:05 영어 스토리 타임 4:15 페피피 5:00 EBS 뉴스 6:00 생방송 워터지 해결단 7:00 정글 플래닛 7:30 한국의 둘레길 7:50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8:40 세계테마기행 9:30 한국기행 9:50 극한직업 10:45 공상기담 11:35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즈 11:55 클래식

# ‘그알’ PD 새 파일럿 프로그램 선택

SBS ‘관계자 외 출입금지’  
“금지구역 공금증 해소”

SBS TV 대표 탐사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를 연출해 온 이동원 PD가 새 파일럿 프로그램 ‘관계자 외 출입금지’를 선보인다.

‘관계자 외 출입금지’는 시사·교양 본부가 제작했지만, 예능이라고 해도 무방한 프로그램이다. ‘무한도전’과 ‘라디오스타’를 만든 김태희 작가가 참여했고 김종국, 코미디언 양세형, 배우 이이경이 진행을 맡았다.

이 PD는 지난 3일 서울 양천구 목동 SBS 사옥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그것이 알고 싶다’를 하면서 억울하게 피해 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고, 사건을 파헤쳐서 도움을 주거나 형사 절차를 밟게 했다”며 “새 프로그램을 한다면 극한 상황이 아니더라도 어려운 상황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응원해 주고 싶었다”고 기획 의도를 밝혔다.

이어 “금지구역을 가보면 어떻게 생겼고, 그곳에 일하는 분들을 찾아가서 고충을 듣고 현장을 보여주고 싶었다”며 “극단의 무거운 프로그램을 오랫동안 해와서 이번에는 시청자들이 편안하게 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해 예능을 했던 작가님을 만났다”고 말했다.

이날 공개된 1화 서울남부교도소편 하이라이트 영상에는 색색의 자막과 장난기 가득한 MC들의 모습이 담겼다.

렌즈를 끼거나 보청기를 착용하지 않았는지 기본적인 신체검사부터 목속에 숨긴 물건이 없는지를 확인하는 항문 검사까지 받는 과정이 현장감 있게 담겼다.

이 PD는 “‘그것이 알고 싶다’를 오래 하



SBS ‘관계자 외 출입금지’ /SBS 제공

면서 교도소에 대한 정보를 많이 갖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가보니 제가 알고 있던 것과는 다른 공간이라 충격적이고 신기했다”며 “그곳의 교정 공무원들이 우리 사회를 위해 묵묵히 맘을 흘리고 있다는 점도 전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이어 “교정 공무원들은 드라마나 영화에 나오는 왜곡된 이미지로 상쳐받기도 한다”며 “(이들의 노고를) 알리려면 수용시설에 들어가는 과정 자체를 체험하면서 어떻게 업무 절차가 이뤄지는지 등을 이해시켜줘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프로그램 내용 중 특정 직군 근무자들 MC들이 인터뷰하는 형식이 tvN ‘유 퀴즈 온 더 블럭’ 등 다른 예능과 유사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현장감”을 강조했다.

이 PD는 “누군가의 직업에 대한 이야기를 듣기는 하지만, 특징이 아닌 한 기관, 그 시설을 통째로 섭외한다는 데 차별성이 있다”며 “MC들은 출입증을 발급받고 곳곳을 돌아다니며 현장 속에서 이야기를 듣는다”고 말했다.

프로그램은 총 3부작으로 기획됐다. 2화는 인천국제공항을 찾아가며, 3화 장소는 공개되지 않았다. /연합뉴스

# 블랙핑크 ‘뚜두뚜두’ 뮤직비디오 20억뷰 돌파

K팝 그룹 최초

걸그룹 블랙핑크의 ‘뚜두뚜두’(DDU-DU DDU-DU) 뮤직비디오 유튜브 조회 수가 K팝 그룹의 뮤직비디오 중 최초로 20억 뷰를 돌파했다고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가 4일 밝혔다.

‘뚜두뚜두’는 유튜브에 공개된 지 약 4년 5개월만인 이날 오전 8시 57분께 유튜브 조회 수 20억 회를 넘어섰다.

소속사는 “‘뚜두뚜두’는 유튜브에서 K팝 그룹 뮤직비디오 최초·최고·최대 조회 수를 때 시간 자체 경신 중”이라고 전했다.

이 곡은 중독성 강한 후렴구와 양손으로 권총을 쏘는 듯한 안무가 흥행하며 2018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본 K팝 뮤직비디오에 선정되기도 했다.

또한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차트인 ‘핫 100’에서 55위에 오르며 해외에서도 큰 인기를 끌었다. 이 곡이 수록된 블랙핑크의 미니 1집은 빌보드 메인 앨범차트 ‘빌보드 200’에서 40위에 오르기도 했다.

블랙핑크 멤버들은 지난해 서울과 북미, 유럽 지역 투어를 끝마치고, 올해는 아시아와 오세아니아를 순회하는 공연을 앞두고 있다. /연합뉴스

오늘의 운세 '소원' 연서연 생생 제공 010-5915-6875 ysy\_wish@daum.net 1월 5일 (음력 12월 14일)

<p>48년생 계획이 이루어진다. 60년생 금전적인 문제가 호전된다. 72년생 의욕이 넘치니 패기도 넘친다. 84년생 즐거운 마음으로 대인관계를 유지하라.</p>	<p>52년생 가까운 사람을 조심하라. 64년생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결정하라. 76년생 훗날 미래를 생각하라. 88년생 적은 지출도 줄여가라.</p>	<p>44년생 용기 잃지 말고 포기하지 마라. 56년생 추진하는 일을 꼼꼼히 잘 살펴라. 68년생 자칫 일이 어긋날 수 있으니 조심하라. 80년생 현실에 만족하라.</p>
<p>49년생 재물 운이 상승이다. 61년생 횡재수가 따른다. 73년생 자신에게 충실한 하루다. 85년생 서로에 대한 감정의 대화로 사랑을 확인한다.</p>	<p>41년생 사소한 일에 마음 쓰지 마라. 53년생 손해를 볼 수 있으니 주의하라. 65년생 돌다리도 두들겨 가라. 77년생 욕심을 버리고 다음 기회를 미뤄라.</p>	<p>45년생 결심에 흔들리지 마라. 57년생 덕을 베풀면 복이 되어 돌아온다. 69년생 주변 사람들과 넉넉한 시간을 보낸다. 81년생 먼저 화해에 손길 내밀어라.</p>
<p>50년생 건강에 좀 더 신경 써라. 62년생 작은 손재수 생기지 않게 조심하라. 74년생 오히려 작은 것도 조심해야 한다. 86년생 망설이지 마라.</p>	<p>42년생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라. 54년생 피는 물보다 진하다. 66년생 가족과 의논하면 해결 방법 생긴다. 78년생 배려하는 마음을 가져라.</p>	<p>46년생 조그마한 일이라도 스스로 하라. 58년생 인내하고 기다리면 기회는 또 온다. 70년생 행동보다 말이 앞서지 않게 하라. 82년생 뿌듯한 하루다.</p>
<p>51년생 집안 경사가 생긴다. 63년생 주변 사람들과 적당한 선을 지켜라. 75년생 막힘없는 길운이다. 87년생 인기가 상승하니 바쁜 하루다.</p>	<p>43년생 평온한 하루다. 55년생 좋은 일만 가득하니 웃음이 떠나질 않는다. 67년생 좋은 결과를 이룬다. 79년생 지혜롭게 헤쳐나가기 사서 걱정.</p>	<p>47년생 오해가 생기지 않게 나서지 마라. 59년생 작은 일에 얽매다 큰일 망치는 일 없도록 하라. 71년생 먹을 복이 풍부하다. 83년생 신뢰를 얻는다.</p>